

A 교정치료란?

건강하게 문화적 생활을 영위한다고 하는 것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바이며 그 위에 아름다움이 더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예부터 미인을 설명할 때 '명모호치(明眸皓齒)'라고 하여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로써 미인임을 강조하는 표현을 해왔습니다. 치과 교정이란 얼굴의 형태에 따라 치아의 배열을 가지런히 해주어 위아랫니가 잘 맞물리게 하며, 입의 모양을 바로 잡아 주고 동시에 음식물을 잘 씹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입니다. 또한 발음을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충치나 치주질환을 예방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A 교정치료의 기간

교정치료는 다른 치료와는 달리 상당히 오랜 치료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지만 대개 1년에서 5년까지의 치료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교정치료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교정치료가 눈이나 코의 성형수술과 같이 미용만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관 관계에 있는 위 아래턱의 성장발육경로를 정상적으로 고쳐주고 치아의 교환 시기에 발생하는 위 아랫니의 부정관 맞물림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아름다움은 물론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교정치료의 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치아와 그 주위 조직에 장애를 주지 않으면서 턱뼈 속에 심어져 있는 치아를 서서히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A 내원 주기

교정치료를 받기 위해서 매일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 2~4주에 한 번의 간격으로 통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행할 때의 경우이며 영구치가 나오는 것을 관찰하거나 적당한 치료 개시기까지 기다려야 할 경우에는 3개월 혹은 반년에 한번 통원하셔도 됩니다. 내원일시는 약속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이 약속일에 오실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연락하셔서 약속일시를 변경해 주십시오. 약속시간에 늦거나 약속일시 이외에 내원하셨을 때에는 진료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다음번 내원일의 약속 밖에는 받으실 수 없으므로 양지 하십시오.

오. 교정치료는 오랜 기간을 요하므로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통원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미리 잘 생각하셔서 치료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A 교정치료를 받으실 동안의 주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나 약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교정치료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장치 가운데 그 증례에 맞는 장치를 선택하여 교정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장치에 따라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다르오니 반드시 담당의사의 지시를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예컨대, 교정용 고무줄을 걸도록 지시를 받았을 때는 꼭 그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치료기간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좋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교정장치는 구조가 복잡하여 음식물이 잘 달라붙습니다. 교정치료가 잘 되어 치아의 배열이 가지런히 되었다고 하여도 충치가 발생하여 보기가 싫게 되면 지금까지 고생을 하며 치료한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이를 철저히 잘 닦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정장치는 섬세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이 되기 쉽습니다. 장치가 파손되지 않도록 너무 단단하거나 질기거나 또는 끈끈한 음식물(오징어, 사탕, 껌등)은 먹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 물어 뜯거나 베어 먹는 것도 조심하여야 합니다. 교정치료를 시작해서 최초의 2~3일은 이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로써 곧 적응이 되니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A 교정치료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Q 치아표면의 탈회 : 탈회란 치아표면이 하얀색으로 부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회는 당분이나 산도가 높은 음식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치아를 닦는 것을 게을리 하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이지만, 교정장치를 장착한 사람의 경우 치아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치아표면이 탈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단 치아표면이 탈회되면 이것은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탈회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별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보기가 좋지 않고 충치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치료(충치치료와 동일함)이 필요합니다.

Q 잇몸의 염증 : 교정장치를 장착하고 치아를 닦는 것을 게을리 하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기 쉽습니다. 교정치료 중에 잇몸의 염증이 심해지면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아를 닦는 것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교정치료 중에 발생한 잇몸의 염증은 교정장치를 제거하고 치아를 제대로 닦으면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고 치유될 수 있으며, 그 후유증도 생기지 않습니다.

Q 잇몸의 퇴축 :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잇몸의 퇴축(잇몸이 밑으로 내려가 치근이 노출됨)이 일어납니다. 성인이 되어서 교정치료를 하거나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교정치료를 하면 치은퇴축이 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치은퇴축은 잘못된 칫솔질 방법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배워야 하며 짧은 기간에 교정치료를 끝낼 수 있게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Q 치근의 흡수 : 교정치료를 하면 치근(치아의 뿌리)이 뼈 속을 이동하는 동안 흡수되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정치료에 의한 흡수의 정도가 경미하여 치아의 수명이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상선질환 같은 전신적 질환이나 원인불명으로 치근이 심하게 흡수될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 교정치료를 중단하고 근관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Q 턱관절 장애 : 교정치료 중에 턱관절이나 주위근육의 동통, 관절잡음(입을 벌릴 때 '딱'하는 소리가 남)과 같은 관절장애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턱관절의 장애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인구의 70%이상이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교정치료 중에 턱관절 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면 잘못된 교정치료에 의한 것으로 의심이 되기 쉬우나 학술적인 연구에 의하면 턱관절의 장애는 교정치료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턱관절 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에 대한 별도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교정 치료를 잠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Q 교정치료의 재발 : 교정치료가 끝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보정장치를 장착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협조가 없으면 재발을 막기 힘들며, 재발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별도의 교정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보정기간이 끝난 후에도 교정치료의 결과가 완벽하게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치아의 위치가 주위의 환경조건(성장, 발육, 사랑니, 치주질환, 구호흡, 악기의 연주, 나쁜 습관 등)에 적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입니다.